

아주 개인적이고 긴 답신

홍지영

최근 사람들을 만나면 가장 먼저 듣는 질문은 “왜 아트 선재 전시에서 빠지셨어요?”다. 우프(W/O F.)의 전시 《나의 동료들에게: I am writing to you》를 시작한 이후로 서문을 읽은 사람들, 아트선재센터의 《스펙트로신테시스 서울》 오프닝 날 우프가 설치한 <나의 동료들에게 보내는 첫 번째 편지>를 본 이들은 모두 이런 질문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 그러니까, ‘읽어봐도 도통 모르겠다. 무슨 말인지...’. 한 줄로 정리할 수 없는, 보이콧이라기엔 애매한, 그래서 선재가 뭐를 어떤 식으로 잘못했다는 건지, 다 읽어보니 책임을 묻겠다는 것도 아닌, 시정을 요구하는 것도 아닌, 아주 길고 잡이야기가 많은 서문. 그래서 그 서문에 대한, ‘참여 안 함’에 대한 물음에 아주 개인적이고 긴 답신을 쓰려 한다.



우프의 <나의 동료들에게 보내는 첫 번째 편지> 설치 기록 사진 © 홍지영, 2026.

나는 2022년 『물의 시간들』이라는 개인 사진집을 내면서 활동을 시작했다. 20년도에 보스토크(Vostok)의 ‘Docking!’이라는, “사진 작업자가 자신의 첫 책을 출간할 수 있도록 돕는 공모 프로그램”에 지원하며 선정되었고, 이후 2년간의 준비 과정을 함께하며 책을 만들었다. 당시 나는 사진을 작업으로 삼는 것도 긴가민가한 상태였다. 그때 내게 사진은, 작업이 될 수 없는, 아주 개인적인 기록에 불과한 것이었으니까. 그런데 공모 프로그램에 선정되고 사진책을 만들게 되면서, 이게 작업이라고 불릴 수 있는 무언가가 될 수 있다는 걸 알았다. 그리고 이게 작업이라고 불릴 수 있는 무언가가 되기 위해서 해야 하는 것들이 있다는 것도 알게 되었다. 우선 첫 번째로 한 것은 사진계와 미술계에서 통용되고 있는 언어로 내 작업을 설명하는 일이었다. 성폭행을 당하고, 그것이 준 커다란 상처가 내 삶이 되어 그것 빼고는 무엇도 설명할 길이 없었을 때, 나는 이런 설명법을 배웠다. 폭력의 잔상이 남은 나의 신체를 탐구하기 위해 사진기를 들었다. 그리고 지금은 이런 설명법까지 배웠다. 홍지영의 개인전 《유적지를 도는 여자들》은 트라우마적 기억을 탐구하며, 사건의 장소를 ‘유적지’로 비유해 과거와 현재를 잇는 상징적 공간을 재구성하는 작업이다. 이번 전시는 사진 작업, 유적지로 상징되는 전시 공간을 배경으로 한 퍼포먼스를 포함하며, 이를 통해 폭력적 기억을 신체와 공간, 행위를 통해 비유적으로 표현한다.¹ 이 전 2025 서울문화재단 예술창작활동지원 지원 신청서에 써서 내고 지원금을 받아낸 작업 소개이다. 여튼 이런 언어가 있어야, 내 작업을 보여줄 수 있다는 것을, 번역하여 설명하여야 한다는 것을, 이때 어렵קות이 배웠다. 그리고 난 이후에는 이 언어의 번역이 나를 어떻게 가두는지 알게 되었다. 물론 그 언어들은, “성폭행”이라는 말을 입에 담을 때마다 눈물이 줄줄 나고 입이 덜덜 떨리는 나를 보호해 줬다. 그리고 지금은 저런 언어만의 아름다움을 안다. 나의 동료 진송이가 말했듯, 언어라는 건 원래 그런 것이라는 것도. 여하튼 나는 나의 첫 사진책을 만드는

1 홍지영 개인전 《유적지를 도는 여자들》, 윈드밀, 2025.10.15-10.26. 23:00-02:00 (매일 23시부터 두 시간가량의 퍼포먼스를 진행): https://windmillperformance.org/Women-wandering-around-ruins_Hong-Ji-young



홍지영, <물의 시간들>(2022) 연작 중.

내내 어떤 것을 지켜내야 하는지, 어떤 것을 포기해야 하는지를 가늠했다. 그땐 그게 편집장님과와의 싸움인 줄 알았는데, 그건 그냥 세상과의 싸움이었고, 이후의 모든 곳에서 이 비슷한 고민을 하게 된다.

이후엔 모 출판사에서 4명의 작가의 사진과 에세이를 묶어서 내는 프로젝트에 섭의를 받았고, 계약을 했다. 마감일에 원고를 보내주자 편집자에게 메일이 왔는데, 내용은 아래와 같다.

편집자: (...) 그리고 쓰신 단어들이 이 책에 한해서는 반향이 센 단어들이라서 다른 작가의 글들과 분위기가 어울리지 못할 거 같아요. (예를 들자면 보지, 강간, 성폭행, 딜도, 정액, 섹스 이런 단어들이입니다.) 챕터 1의 수위로만 써주시면 다른 작가들과 잘 어울리면서 다양성도 확보될 것 같습니다.

↳ 나: (...) 그런데 언급하신 단어들을 다른 단어로 바꾸거나 강도를 낮추어 말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어요. 저 단어들에 주신 의견은 주제에 맞춘 글 혹은 다른 작가들과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라기보단, 보수적인 관점에서 판단하는 검열에 가깝다고 느꼈습니다. 다른 것으로 교체될 수 있었다면 애초에 저 단어들을 선택하지 않았겠죠. 제게는 저 단어들과 함께하는 것이 필연적이고 자연스러운 일이어서 전혀 강도가 높다고 생각되지도 않고요. 제가 느끼는 슬픔은 수많은 인생들이 뒤엉켜 서로를 괴롭히면서도 서로에게 연민을 가지는 폐허 속에 있다고 생각해요. 그걸 표현하기 위해 적어야 하는 것이 있다는 걸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사실 이런 식의 이야기는 서로 굉장한 진이 빠지는 일이죠. 그래도 대화를 나누고 싶어 이렇게 적어 보냅니다. 그럼 보시고 답신 주세요.

↳↳ 편집자: 안녕하세요, 홍지영 작가님. (...) 단어의 표현 수위에 대해 제가 우려한 부분을 좀 더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작가님께서 제가 조율을 부탁드린 부분이 보수적인 관점의 검열에 가깝다고 느끼신 것 같지만, 검열과는 관계없는 다른 방향의 의미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 두 번째로는 가능성이 많지는 않겠지만, 19금 도서로 규정되어, 많은 독자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잃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제가 중간에서 조율하지 못하여 다른 작가분들이 폭넓은 독자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잃는 것에 더해, 개인적으로 여유가 많지 않은 입장에서 사활을 걸고 있는 제 일에도 어려움이 닥칠 것이 염려되기 때문입니다. 한 권 한 권 준비할 때마다 할 수 있는 한 마음을 다 담아 만들려고 해요. 그만큼 제게도 이 책이 너무 소중한 작업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

↳↳ 나: 안녕하세요, 홍지영입니다. 오래도록 생각한 결과, 제 글을 신고 싶지 않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작업을 보여줄 곳이 절실한 신진 작가인 제 입장에서, 이런 결론을 내리기까지 많은 고민을 했다는 점 알아 주시길 바라요. 저는 <물의 시간들>을 책으로 엮는 과정, 그 이후에 인터뷰와 작업 발표 등 온갖 곳에서 지금 ** 님이 제안하시는 것과 같은 검열들을 받아왔어요. 물론 아무도 검열이라고 말씀하시는 분은 없었지만요. 19금 도서로 지정될까 봐, 대중들이 원하는 것이 아니어서, 어린이들이 있어서, 생각하고 있는 결과물의 느낌과 달라서 등등의, 검열을 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아주 합리적인 이유들을 제게 말씀하셨어요. 저는 그 과정에서 너무 지쳤습니다. ** 님이 말씀하신 단어들은 오히려, 모두가 쓰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제가 쓰기로 선택한 단어들이며, 제가 오래도록 곁에 머물기로 약속한 단어들입니다. 첫 책인 『물의 시간들』에서 제 개인의 성폭행 피해에 관해 밝히면서, 그것을 공유재로 내놓으면서 했던 다짐은 ‘절대 트라우마를 딛고 나아진 피해자 혹은 작업자가 되지 말자,’ ‘그런 식으로의 나아짐이 소외하는 것들에 대해 매일 생각하자’였습니다. 그러니 그 단어를 다른 단어로 바꾸는 것은 ** 님이 상상하신 것 이상의 슬픔을 제게 주어요. 그 단어들에 달라붙은 부정적인 것들은 오히려 그 단어들의 몫이 아니라 사람들의 몫이라고 생각해요. ** 님께 첫 메일을 받고 답신에 ‘수위’에 관해 이야기한 것도, 우프라는 집단을 친구들과 함께 꾸리고 그 이름으로 출판사를 유지하고 있는 것도, 제 작업이 이러한 반항들에 있어 자유롭기 위함에 있습니다. (...) ** 님은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 일에 사활을 걸고 있다고 하셨죠. 저도 제 작업을 지키기 위해 많은 것들을 뒤로하고 이런 자리에서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함께하지 못하여 안타깝습니다. ** 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책을 잘 마무리하셨으면 해요. 감사합니다.

메일에는 아주 확신이 있는 것처럼 말했지만, 저 당시의 나에겐 확신이 없다. 내가 왜 저 단어들에 그냥 빼고 고쳐주지 않았는지. 메일 속 감정적인 호소를 읽으며 그를 이해하고, 다시 화가 났다가, 슬펐다가를 며칠 반복했다. 그 감정들을 다 소화하기 위해 진을 뺐다. 앞으로 이런 요청들에 다 이렇게 반응할 건지. 이렇게 한다면 나는 누구와 일을 할 수 있는 건지. 평생 우프만 하고, 내 자리 내가 펴서 앉는 수고스러운, 너무나 수고스러운 일만 하게 되는 건지. 결론 없는 생각들을 일기에 적어 뒀다. 지금 그 일기를 다시 읽어보니, 그때 느꼈던 그런 막막함은 지금 아트선재센터의 전시에 대한 결정을 하기 전과 후, 몇 달 동안 내가 겪고 있는 것과 비슷한 것이다. 그런데 사실 그런 막막함은, 화는, 우울은, 내게 힘이 된다. 나의 힘은 쓰레기통이다...



W/O F.(우프), 『Without Frame! Vol.2: 나의 힘은 쓰레기통이다』(2022).

우프와 첫 전시 《모텔전: 눈 뜨고 꾸는 꿈》을 열었다.² 그건 우리의, 나의 첫 번째 전시였다. 우리의 작업에게 공간이 필요하다면, 그게 전시의 형태라면, 모텔이라는 장소가 필연적이라는 생각을 했다. 그렇게 12시간 동안의 전시를 마치고 나선, 이런저런 다른 전시에서 불리기 시작했다. 다음 해인 2024년, 프리즈 기간을 피해서, 그리고 프리즈 기간에 맞춰서 전시 제안이 들어왔다. 나는 그중 뮤지엄헤드 기획 단체전 《흑백논리》에 참여했고,³ 프리즈 서울 라이브 프로그램(Frieze Seoul LIVE 2024)에서 퍼포먼스형 전시 《정지, Rest》를 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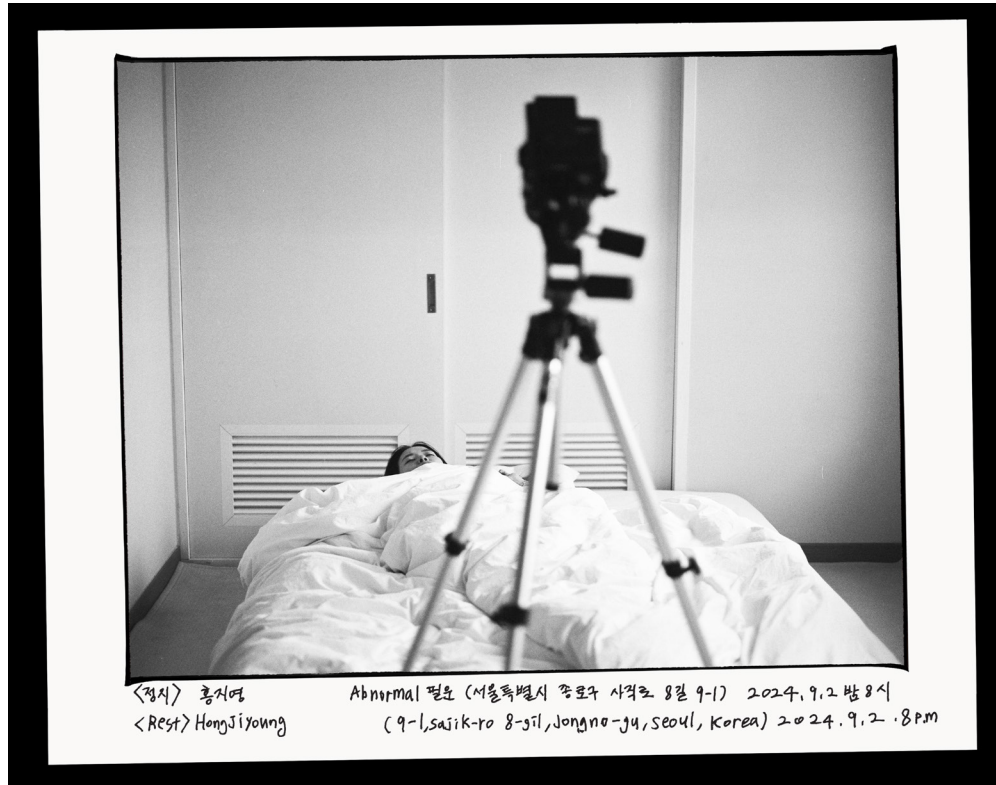
프리즈 서울 라이브 프로그램의 일부로 기획된 《정지, Rest》는, 올리기 전까지의 과정에서 많은 문제를 직면해야 했다. 그중 말할 수 있는 것 한 가지는, 나의 전시에 참여하던 퍼포머와 프리즈 측의 계약서 작성에 관한 문제다. 프리즈는 한국에 있는 작가들과 계약서를 체결할 때 영어로 된 계약서를 준다. 한국에 와 전시를 한 지가 몇 년 쯤인데, 그 많은 한국 작가들은 모두 영어로 된 계약서에 서명을 한 것일까? 나를 비롯한 퍼포머 일부는 영어가 익숙지 않기 때문에 꽤 곤욕을 겪었다. 그리고 두 번째 문제는, 전시 보름 전 장소 사용 불허 통보를 받았다는 것이다. <정지>라는 작업은 말 그대로 정지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암실 작업에서 정지(stop bath)는 종이와 현상액에 반응한 뒤, 적당한 때에 정지시켜, 제 형상을 지키게 만드는 과정이다. 현상액이 종이를 다 검게 태워버리는 것을 막을 수 있게, 멈추는 과정이다. 체액, 상처, 어두움을 가진 덩어리의 몸이, 사고파는 축제의 한복판, 코엑스에서 정지의 역할을 해주길 바랐다. 그런데 작업을 진행한 지 세 달이 넘어가고, 전시를 보름 남기고 코엑스 공간을 쓸 수 없다는 통보를 받았다. 사유는 작업에 누드 신체가 포함

2 홍대 미성장 호텔에서 2023년 10월 27일 오후 7시부터 28일 오전 7시까지 열두 시간 동안만 진행되었다. 참여 작가는 광예인, 김보람, 성재윤, 야광, 재훈, 차연서, 황선미, 황아림, 홍지영, 황예지.: <https://withoutframe.cargo.site/모텔전>

3 《흑백논리 B/W SIGNALS》, 참여 작가: 권도연, 김혜원, 김천수, 김태동, 김효연, 노순택, 이현무, 홍지영, 홍진훤, 황예지, 기획: 권혁규, 뮤지엄헤드, 2024.08.30-11.02.: <http://museumhead.com/흑백논리-b-w-signals/>

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는 처음 작업을 시작할 때부터 이를 전제로 삼고 있었으며, 이에 대해 3개월 동안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나누어 왔다. 결국 나는 급하게 새로운 장소를 찾았고 종로의 어떤 공실에서 전시를 보여주게 되었다.

4 《정지, Rest》는 2024년 9월 2일 열렸고, 그 해 프리즈 서울은 9월 4일부터 7일까지 코엑스(COEX)에서 개최되었다. 이른바 ‘프리즈 위크’(9월 2일~5일)에는 서울 곳곳에서 ‘나잇(night)’ 행사가 이어져, 《정지, Rest》가 진행된 종로 근처 삼청동 일대의 나잇 행사는 9월 4일 진행되었다.



《정지, Rest》 포스터(2024), 디자인: 황아림.

작가들의 꿈직한 점은, 어떤 식으로 작업이 완성되건 완성된 작업에 대한 합리화를 스스로 할 수 있다는 데에 있다. 나도 이 전시를 진행하는 과정 내내 말도 안 되는 과정 속에서 그런 합리화를 했다. 퍼포먼스가 진행되는 한 시간가량 꼼짝 없이 누워서 눈을 감고 있는 동안, 나는 내 작업 안에서 안전하게 진동했다. 정지액(stop bath)의 찌린내, 우는 이의 목소리로 몸이 덩 덩 울렸다. 그리고 시간이 다 지나 일어서서 관객들을 바라보고 인사를 했을 땐, 눈이 떠졌다. 작업 속에서 바깥으로 뻗어졌기 때문에. 휘청했다. 정말 많은 관객이 있었다. 며칠 뒤, 근방에서 이어진 삼청나잇 행사에는 와인과 먹을거리가 잔뜩 깔려 있었고, 4 <정지> 작업 관련 미팅 때 “퍼포먼스 중간에 술 먹을 시간은 없냐”던 관계자의 말이 이해가 되었다. 주변 미술관의 전시를 설명하는 리플렛은 바닥에 떨어지고 밟히고 다 동이 난 상태였고, 아마도 작업을 살 수 있는, 이 예술가들을 어디론가 좋은 곳으로 데려가 줄 것처럼 보이는 이들이 시간에 맞춰 벤을 타고 여기저기에 출몰했다. 와인잔을 손에 들고 퍼포먼스를 즐기고, 서로 인사를 나누었다. 모두가 신이 나 보였다. 나는 그제야 내가 어떤 곳에서 작업을 발표했는지를 알게 되었다. 뭐랄까. 형용할 수 없는 감정이 밀려왔고, 늦게까지 귀어 친구들과, 게이바에서 술을 먹다, 집 가서 토했다. 모든 게 너무 과했다. 제때에 정지하지 못한, 다 검게

타버린.

2025년에는 서울문화재단의 지원에 선정되어 개인전 《유적지를 도는 여자들》을 했다. 그리고 또 프리즈 기간에 《오프사이트 2: 열한 가지 에피소드》 단체전에 참여를 했다. 작년, 나는 20대 내내 찍어 왔던 사진 전부를 내보내고, 다른 곳으로 가고 싶었다. 두 개의 전시에서 총 230장 정도의 사진을 내보냈다. 1년 동안 백 장이 넘는 사진을 암실에서 인화했고, 두 번의 이사를 했으며, 20대를 통째로 함께 보낸 애인과 헤어졌다. 사진을 처음으로 즐겼다. 그 재미에 빠져 어느 날은 정신이 아스팔트로 곤두박질치고 어느 날은 하늘을 날았다. 킁킁한 암실 속에서 붉은 등에 의지해 사진만을 바라봤다. 행복한 날들이었다.



《유적지를 도는 여자들》 전시 기록사진 © 홍지영, 2025.

삶은 다 망가져도 작업 안에서만큼은 풍요로운 시간이었다.

그리고 올해가 되기 전 아트선재센터에서 《스펙트로신테시스 서울》에 참여 제안을 받았다. 미팅을 마치고 집에 돌아오는 길에, 이렇게 많은 작가가 참여하니 나는 좋은 자리를 선점하고, 그 환경과 조건에 맞는 작업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다. 그 생각과 함께 수치심이 몰려왔다. 여기에 들어가는 것이 내게, 내 작업에게 어떤 슬픔을 줄 거란 걸 예감했다.

선재가 전시를 꾸리는 방식: 귀어한 것에 대한 해석 없이 귀어라는 정체성 하나만을 가지고 작가들을 대량으로 적절한 연구 없이 모으는 것. 프리즈처럼, 백화점처럼, 작가들의 작품을 나열, 진열해 두고 하루 안에 둘러볼 어떤 상품처럼 여기는 것. 그에 맞춘 구색 맞추기 식의 퍼포먼스와 토크들을 나열하는 것. 그것을 만들기 위해 노력할 작가, 큐레이터, 연구자들의 노동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는 것. 채 다 할 수 없는 일을 벌이고 그것에 해당하는 노동을 이들의 열정에 떠넘기는 것. 나는 이번 선재 전시에 대한 결정을 단순히 하나의 전시 참여 여부로 생각한 것이 아니다. 내게 그 결정은 지난 몇 년 간 반복되어 온 번역과 조율, 정지의 기억들을 다시 돌아보게 하는 일이었다. 그리고 내겐 이것을 해석할 만한 시간이, 앞으로의 방향을 점검할 시간이, 이 상황에 대한 동료들의 조언과 논의와 공론장이 필요했다. 앞으로 이 세계는 이런 식으로 팽창할 것 같다. 재개발의 논리처럼 외국 자본이 지역에 들어와 활성화와 일자리를 약속하고, 현지 산업과 생태계를 밀어 버리고 제 맘대로 재편하며, 일부에게만 이익을 남기고, 돈을 만들어 내는 더 큰 가치들, 브랜드, 더 높은 자리의 일을 가져가고, 소비하고, 떠나는 구조. 이 구조가 내 작업을 구성하는 일부라면. 이에 더해 내 작업을 변형시킨다면. 나는 지금 무얼 해야 하는가? 혹은 하지 않아야 하는가. 아직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고 있다. 여기에서 내가 썼던 시 <나는>을 생각한다. 그리고 《나의 동료들에게: I am writing to you》 전시를 위한 노동을 하러, 그 전시에 속한 나의 작업 <다크 포스팅>을 하러 간다.

나는

나는 이제 와 모든 것을 돌아보니 과거의
나는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

나는 무엇보다 나의 카타르시스를 위해 평생 창작을 했으며, 그 태도를 평생 동안 잃지 않았다.

나는 나의 욕망을 정돈되지 않은 언어로, 떨리는 목소리로, 우는 목소리로, 들어줄 때까지, 죽기 직전인 지금까지 말했다. 입을 다물고 말을 삼키고, 글로 썼다. 사진으로 찍었다. 정갈한 세미나도 열고, 책도 출판했으며, 동료들과 떼거지

로 움직였다. 화도 내고, 소리도 질렀다. 시위도 했다. 그래도 부족할 때에는 혼자서 제사를 지냈고, 기도를 올렸으며, 알 수 없는 행위를 반복했다. 반복하며 즐거워했다. 그걸로 다 된 것 같다는 생각을 했다. 그러나 이내 부족해졌다. 나는 나의 욕망을 말하는 데에 그치지 않았다. 나는 오해와 박제와 공감의 늪에서 기어 나와, 다른 이에 대해서 이야기했다. 다른 이와 함께 먹고, 마시고, 씻고, 잤으며, 그 모든 것을 그만둔 채로 옆에 있었다.

나는 다른 이에게 상처를 주고 사과를 빌어봤으며, 평생 용서받지 못했다.

나는 수많은 대가를 치르더라도 치유되길 원했다. 나는 치유된 미래보다, 치유되지 않은 현재에 살고자 했다. 나는 치유되지 않길 자처했다.

나는 아파 누운 삶의 지난함을 그리고 그것의 아름다움을 느꼈다.

나는 상상만으로 방문할 수 있는 몸의 유적지를 여러 곳 두었다. 그 이후로 나는 몸의 경계가 보이는 것들의 합산이 아님을 알게 되었다. 지나온 삶의 자취와, 구취와, 취기와, 떠내려간 오물과, 의료기기와 의료 행위, 머물렀던 장소와 함께 했던 친구들, 애인들. 그리고 상상과, 조상과, 망상과, 망각까지. 전부 몸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나는 매달 한 번씩 피를 흘렸으며, 그것의 에너지를 알았다.

나는 내가 당한 폭력을 공유재로 꺼내 두었다.

나는 성폭행 피해 당사자로서 그 정체성에 매몰된 채 삶을 살았다.

나는 그 모든 혼란 속에서도 적극적으로 사랑을 갈구하는 사람이 되길 선택했다. 구애하고, 대상화되기를 자처하고, 맹목적이었다.

나는 타자화되는 존재들의 살아있는 삶을 사랑했으며, 그것과 동시에 그들이 대상으로서 매력적인 존재임을 알았다. 그저 태어나며 시작되는 끊임없는 거울들이 밀기의 싸움 속에서, 수많은 거울이 몸 깊숙이 자리한 이들은, 희미한 빛만 들어도 반사되어 발광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다. 우리가 짓이김을 당하는 평생 동안, 그리고 그 유리 조각이 더 작은 조각으로 갈라지고, 더 작은 조각으로 갈라지며 모든 방향에 빛을 퍼뜨리는 동안.

나는 그 커다란 비명의 함성 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또한 비명과 함성, 축제와 장례로 모든 것이 설명되길 원치 않았다.

나는 이유 있는 검열에 시달렸다. 나는 작업물로서 검열에 반기를 들었다. 나는 작업물로서 아무런 반기를 들지 못했다.

나는 주변에 있는 자들의 한 가운데로 들어가, 그곳에서 태어나, 그곳을 중심으로 밖을 다시 내다봤다.

나는 창작자로서 평생 동안 나의 입지를 증명하기 위해 역사와 과학을 가져오지 않았다. 내가 무언가를 가져왔다면 그건 기록되지 못했던 사람들의 역사와 과학이었다.

나는 그것들이 기록되지 않기 위해 구성된 사회에 대한 본능적인 거부감이 있었다. 보이는 것 그대로 생각할 수 없었다. 나는 보이지 않는 것을 믿었다.

나는 즐겁게 작업을 했다.



<다크 포스팅> 기록사진 © 홍지영, 2026.

홍지영/Hong Jiyoung. 보이지 않지만 실재하는 것들을 위해 사진을 찍고 글을 쓴다. 사진집 『물의 시간들』을 출간했으며, 개인전 《유적지를 도는 여자들》 등을 진행했다. 현재 창작그룹 W/O F.의 소속 작가로, 《나의 동료들에게: I am writing to you》를 공동 기획했다.